

여름휴가활동 선택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

金承賢* · 嚴瑞浩**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Attitudinal Determinants of Summer Vacation Activity Participation -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

Kim, Seung-Hyun · Um, Seo-Ho

Dept. of Tourism & Recreation, Kyonggi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as to test applicabilit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by Ajzen & Driver(1992), to predicting summer vacation activity participation.

Vacations to vist Sock-Cho City in summer were ask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to measure attitudes,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intentions in relation to participating in three vacation activities, at the beach, at the valley, and at the pool. After summer vacation, respondents were called to answer whether or not they had participated in those activities.

The results showed that attitudes toward vacation consist of affective and instrumental component. Consistent with the theory, attitudes,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 predicting intentions to participate in vacation activities. In addition, intentions and perceived control were influential in predicting vacation activities participation.

Although the objectives of the study were achived, this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Koreans' summer vacation participations did not show the same power as the Ajzen & Driver's study(1992) in predicting recreation activities participation. It would be desirable for future research to apply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various recreational settings.

* 중앙개발 조정사업부 사업기획팀 근무

**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부교수

I. 序論

여가활동 참가가 대중화 다양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가행동 연구를 위한 기반정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여가활동의 예측방법을 발전시키고, 여가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태도연구의 일반 이론과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아젠과 드라이버(Ajzen & Driver, 1992)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아젠과 드라이버(Ajzen & Driver, 1992)는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여가 활동과 활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 주관적 규범(subject norm), 지각된 행동조절(perceived behavioral control) 그리고 의도(intention)와의 영향관계를 밝혔다.

계획행동이론은 아젠과 휘쉬베인(1980)의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을 발전시킨 이론이다. 태도-행동이론인 합리적 행위이론은 경험적 연구결과를 통하여 이론적 지지를 받아왔다(Ajzen & Driver, 1992).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자기조절 능력(volitional control)이 충분히 가능한 행동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아젠(Ajzen, 1985)은 계획행동이론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자기조절능력(volitional control)이 어려운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

여가 관광행동의 예측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관광목적지 선택 측면에서의 연구가 일부만 다루어지고 있을 뿐 여가활동 선택 차원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아젠과 드라이버(Ajzen & Driver, 1992)의 여가활동선택 연구를 바탕으로 여름휴가활동에 참가에 있어서 중심요인들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계획행동이론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계획 행위이론의 적용에 의해 국내 여가관광 활동 선택의 합리적 예측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가관광행동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II. 計劃行動理論의 構成要因

계획행동이론은 합리적 행위이론과 같이 중심요인은 개인의 의도(individual's intention)이다. 계획행동이론에서는 개념적으로 의도에 관한 세가지 독립된 결정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이다. 태도는 주어진 활동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수준을 말한다.

둘째는 사회적 요인인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이다.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 요인으로 행동을 이행할것이나 안할것이나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관한 지각을 말한다(최양호, 1994). 이 두 요인은 합리적 행위이론의 중심요인으로 같은 의미를 갖는다.

세번째 결정요인은 지각된 행동조절(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이다. 이 요인은 행동수행의 용이성을 지각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합리적행동이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의도 예측 결정요인이다.

계획행동이론에 의하면 행동수행을 위한 의도는 이 세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측된다. 즉,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클수록 그리고 지각된 행동조절이 클수록 행동수행을 위한 개인의 의도는 커진다는 것이다. 사실 계획행동이론은 지각된 행동조절을 의도와 행동예측 결정요인으로 도입했다는 것이 합리적행위이론과 다른점이다.

의도는 실제행동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의도는 자신의 욕구 또는 의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시간, 돈, 기술,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일치 등과 같은 비동기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즉, 개인은 비동기적 요인들을 조절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리고 의도수준에 의해서 행동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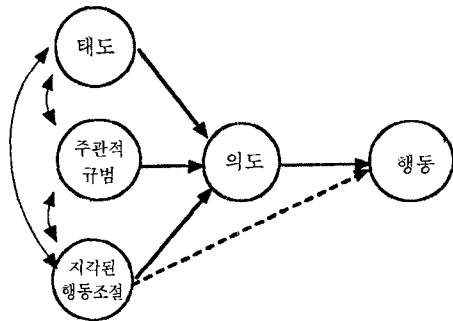
계획행동이론에 의하면 지각된 행동조절은 행동수행 의도와 함께 실제 행동수행을 예측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결정요인이다.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수준이 일정할 때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과정 확대노력은 지각된 행동조절을 증가시킨다(Ajzen & Dri-

ver, 1992). 예를들어 서로 다른 개인들이 스키를 배우려는 의도수준이 같다면, 스키를 마스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보다 스키를 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각된 행동조절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스키를 타려는 의도수준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각된 행동조절은 실제 조절을 측정하기 위한 대체변수로 이용된다(Ajzen & Madden, 1986). 지각된 행동조절 측정을 실제 행동조절 측정에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행동조절에 대한 지각수준의 정확성에 달려 있다. 특히 지각된 행동조절은 행동에 관한 정보가 적거나 행동을 위한 여건이 변화할 때 또는 새로운 상황이 일어날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각된 행동조절의 측정은 실제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지각된 행동조절이 현실적인 범위에서 행동수행의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계획행동이론의 구조적 모델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계획행동이론에서 이들 예측요인들은 의도와 행동을 충분히 설명하는 요인들로 가정된다. 그러나 이들 요인들은 주어진 모든 활동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도예측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조절의 상대적 중요성 그리고 행동예측시 의도와 지각된 행동조절의 상대적 중요성은 각 활동별로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변한다.



자료 : Ajzen, I and B.L. Driver (1992),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Leisure Choi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3), p210

[그림 1] 계획행동이론 모형

Ⅲ. 測定과 檢證

1. 측정척도

본 연구의 자기기입식 설문지는 크게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이 되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조절, 의도 항목이 3가지 활동별로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51개 문항과, 2차조사를 위하여 성명과 객실번호 또는 거주지 전화번호를 기입하는 문항과 조사자가 활동 참가여부를 기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Ajzen 과 Driver(1992)가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고자 한다.

가. 태도

태도측정은 각 활동에 대하여 11개의 의미차이 7점척도항목(7-point semantic differential scale items)을 이용하였다. 이 측정항목은 태도의 수단적(Instrumental)차원과 감정적차원(Affective)으로 구성되었다. 태도의 수단적 차원의 측정항목은 활동참가에 대한 4개 항목 즉, 현명성, 활동의 유익성, 활동의 유용성, 활동의 잠재성, 활동의 적극성에 관한 항목들이며, 감정적 차원의 항목은 매력적인 활동, 관심을 끄는 활동, 재미있는 활동, 좋은 활동, 즐거운 활동, 하고싶은 활동, 멋진 활동이라는 7가지 측면에서 항목을 구성하였다. 두 가지 요인구조로 구성된 이들 항목들은 7점척도(전혀그렇지 않다:1, 보통이다:4, 매우 그렇다:7)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나. 주관적 규범

각 활동별로 주관적 규범을 측정하기 위해 2개의 7점 평가척도(전혀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7)를 이용하였다. 항목 내용은 (1) 나의 주변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2) 나의 주변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을 당연 하다고 생각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 대하여 답한 응답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주관적 규범 측정치로 이용하였다.

다. 지각된 행동조절

지각된 행동조절도 2개의 7점척도(전혀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7)를 이용하였다. 각 항목별 내용은 (1) 나에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2) 나는 ()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구성되어 있다. 지각된 행동조절의 측정치는 응답자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라. 의도

의도항목 또한 2개의 7점척도(전혀그렇지 않다:1, 아주 그렇다:7)를 이용하였는데, 이 항목에서는 특정 기간이 주어졌다. 시간적 틀 없이 의도를 표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특정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각 항목은 한행씩 구성되어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이번 휴가동안 ()을 할 계획이 있다. (2) 나는 여름휴가동안 ()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의도 항목또한 측정치를 얻기 위해 의도에 관한 두 항목간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마. 활동참가여부

각 활동별 참가여부는 범주화 자료형태로 만들기 위해 참가한 경우 1, 참가하지 않은 경우 0으로 범주화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2.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조사자료는 다음과 같은 조사설계를 거쳐 수집되었다. 본 조사에 앞서 활동을 선정하기 위하여 여름 숙박관광목적지에서 할 수 있는 야외위락활동 5개를 선정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표본 N = 30)하였다. 이결과를 통하여 5개 활동(명소탐방, 해수욕, 등산/계곡물놀이, 수영장에서 보내는 시간 수중스포츠)중 빈도수가 높은 3개 활동(해수욕, 등산/계곡물놀이, 수영장에서 보내는 시

간)을 선정하였다.

본 조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대상지는 우리나라 여름휴가지로 가장 선호되는 지역¹⁾이며, 휴양자원과, 산악자원 그리고 다양한 위락시설 및 편의 시설을 갖추므로써 동등한 조건에서 활동선택이 가능한 곳인 속초지역(설악산, 동해)에 위치한 3곳의 콘도미니엄(대명설악콘도, 현대훼미리콘도, 일성콘도)이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는 만19세 이상의 성인으로 해당지역 콘도미니엄에 숙박하는자로 선정하였다. 단, 해변에 위치한 콘도미니엄과 숙박시설 이외의 부대시설(수영장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콘도미니엄 이용자들은 제외시켰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동등한 조건에서 응답자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 지역에 위치한 콘도미니엄 이용자들은 해수욕과 같은 특정 활동에만 참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차조사는 활동선택 이전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조절, 의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1996년 8월 11일, 12일, 13일 3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활동선택 여부를 동일대상자에게 물어보기 위해, 설문대상자들에게 퇴실 날짜와 성명, 객실번호 또는 전화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2차조사는 주어진 활동에의 참가여부를 물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1차조사에서 수집된 동일 대상자들의 객실번호 또는 거주지 전화번호와, 대상자 이름을 가지고 전화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시기는 객실번호를 기입한 대상자들일 경우 1차조사에서 얻은 퇴실 날짜에 맞추어 해당 콘도미니엄에 퇴실하기 전인 오전에 실시하였고, 거주지 전화번호를 기입한 대상자들에게는 1차조사일 부터 10일 후 저녁시간에 걸쳐 가정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활동참가 여부를 파악하였다. 본 조사는 250명을 표본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167명이 유효표본으로 결정

1) '96년 도로공사에서 실시한 하계 휴가지지역에 대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52% 이상이 동해, 설악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되어 66.8%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나머지 표본들은 응답이 부적절하거나 성의없게 기입한 표본이 11명, 객실번호나 거주지 전화번호를 잘못 기입한 표본 23명, 2차조사에 불응당한 표본 49명으로 나타났다.

3. 신뢰성/타당성

검증 가설검증에 앞서 본 연구의 주모델인 계획행동이론모델의 태도, 주관적 규범, 의도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신뢰성 평가는 신뢰도 계수(Crombach's alpha)가 이용되었으며, 타당성 평가는 요인분석에 의한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이 검토되었다.

가. 측정항목의 신뢰성(reliability) 검증

〈표 1〉은 본 연구를 위한 각 측정치의 활동별 신뢰성 검증을 위한 Crombach α 값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측정변수의 신뢰성 계수(N=167)
(Crombach's Alpha Coefficient)

	여름휴가활동		
	이수율	등산/계곡 물놀이	수영장에서 보내는시간
감정적태도(A1)	0.95	0.95	0.96
태도 수단적태도(A2)	0.84	0.80	0.89
전체태도(A)	0.95	0.94	0.97
주관적규범(SN)	0.80	0.77	0.89
지각된행동조절(PBC)	0.60	0.79	0.74
의도(I)	0.86	0.94	0.94

의도와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조절 각 측정치들은 두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도 측정치는 활동별로 0.86~0.94로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조절 측정치들도 0.60~0.89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태도 측정치들의 신뢰계수도 활동별로 0.80에서 0.97 수준이며, 주목할 만한 것은 감정적 요인 측정치들의 α 계수가 수단적 요인 측정치보다 항상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본 연구를 위한 관찰변수들의 측정치들은 신뢰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개념에 관한 척도가 기존 연구에서 여러번 검증된 척도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 측정항목의 타당성(Validity) 검증

본 연구의 관찰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조절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로 평가하고자 한다. 3개의 변수를 측정하는 15개의 문항들이 독립된 요인으로 구분되는가에 대한 판별타당성과, 각 문항이 동일개념을 측정하는 요인에 높게 적재되는가에 대한 집중타당성을 살펴봄으로써 측정개념의 개념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요인회전방법은 전통적인 직각회전 방법인 Varimax방법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각 활동별로 단일요인이 아닌 3개의 독립된 요인 즉, 요인1은 태도변수, 요인2는 주관적 규범 변수, 요인3은 지각된 행동조절변수로 구분되고 있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결합된 요인간의 변수별 요인적재량이 0.60이상으로 각 소속요인에 높게 적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한 태도, 주관적규범, 지각된 행동조절들의 집중타당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표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이용하여 표본의 집합도(MSA)를 검증하여 본 결과 각 활동별로 0.91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두 요인의 설명량도 모두 70%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태도변수는 각 활동별로 태도문항이 단일 요인이 아닌 2개의 독립된 요인으로 구분되고 있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결합된 요인간의 변수별 요인적재량이 0.5이상으로 각 소속요인에 높게 적재되고 있어 본 연구에 사용한 태도 측정항목들의 집중타당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요인에 의해서 설명된 변량이 7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MSA도 0.76이상으로 모두 요인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태도변수의 요인분석 결과는 Ajzen 과 Driver(1992)

〈표 2〉 측정변수의 요인구조

변 수	해수욕			등산/계곡물놀이			수영장에서 보내는 시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요인2	요인3
1. 현명한 선택이다	0.79			0.76			0.80		
2. 유익한 점이 많다	0.70			0.60			0.83		
3. 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0.78			0.60			0.81		
4. 적극적인 휴가활동이다	0.56			0.67			0.80		
5. 관심을 끄는 활동이다	0.70			0.80			0.83		
6. 재미있는 활동이다	0.76			0.84			0.81		
7. 좋은 활동이다	0.79			0.73			0.80		
8. 매력적인 활동이다	0.85			0.78			0.77		
9. 즐거운 활동이다	0.85			0.74			0.80		
10. 하고싶은 활동이다	0.76			0.69			0.77		
11. 멋진 활동이다	0.83			0.70			0.77		
12. 주변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0.76			0.81			0.87	
13. 주변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0.80			0.73			0.86	
14. 어려운 일이 아니다		0.78			0.86			0.86	
15. 충분한 여건들을 갖추고 있다		0.65			0.73			0.83	

해수욕 : MSA = 0.93, 설명된 변량 73%
 등산 / 계곡 물놀이 : MSA = 0.91, 설명된 변량 71%
 수영장에서 보내는 시간 : MSA = 0.92, 설명된 변량 80%)

가 태도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들이 감정적(Affective)차원과 수단적(Instrumental)차원의 2가지 요인구조로 구분됨으로써 타당성이 있음을 재입증하는 것이다.

IV. 資料의 分析

분석방법은 의도와 의도 영향변수들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변수선택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처리절차는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또한 계획행동이론에 활동선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활동선택 측정치인 종속변수가 범주형자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처리절차는 SA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의 LOGISTIC 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1. 의도의 영향요인 분석

〈표 3〉은 단계적 변수선택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결과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태도변수와 주관적 변수를 도입하였고, 마지막 단계에서 지각된 행동조절을 도입하였다. 태도변수는 의도예측치로서 수단적 태도 A1(instrumental attitude)와 감정적 태도 A2(affective attitude)로 구분하여 포함시켰다.

분석결과 완전모델(2단계)하에서 활동별로 다중상관관계가 모두 60%수준이며,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의도에 대한 영향정도를 나타내는 독립변수별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는 태도의 경우 활동 모두 통계적으로 0.05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의도예측변수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주관적 규범은 등산/계곡물놀이, 수영장에서 보내는 시간에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서 R²값의 증가량은 각 활동별로 해수욕 7%, 등산/계곡물놀이 7%, 수영장에서 보내는 시간 9%로 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각된 행동조절 변수의 도입은 세가지 여름휴가활동별로 의도예측력을 높히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의도예측(다중회귀분석-Stepwise)

b	R	해수욕			등산/계곡물놀이			수영장에서 보내는 시간		
		N=167			N=167			N=167		
	r	r			b			R r		
Step 1- A1	0.19	0.34**			0.12	0.18		0.11	0.19	
A2	0.47	0.30**			0.41	0.31**		0.54	0.32**	
SN	0.17	0.20	0.54		0.18	0.28**	0.48	0.24	0.34**	0.60
Step 2- A1	0.19*	0.33**			0.12	0.17		0.11	0.21*	
A2	0.47	0.22*			0.41	0.22**		0.54	0.22*	
SN	0.17	0.12			0.18	0.25*		0.24	0.29**	
PBC	0.25	0.29**	0.61°		0.22	0.27**	0.55°	0.16	0.21**	0.69°

(주) r = 편상관, b = 표준화된 회귀계수, R = 다중상관 a는 다중상관이 사전단계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p<0.01)
 *p<0.05, **p<0.01

상대적 기여도는 해수욕의 경우 태도가, 등산/계곡물놀이는 지각된 행동조절 요인이, 수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주관적 규범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2. 행동의 영향요인

분석 <표4>는 각 활동별 로짓분석 결과이다. 우선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ρ^2 와 $-2\text{Log}L$ 을 측정하였는데, 해수욕과 수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각각 0.24, 0.22로 나타나 적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선정된 활동별 행동예측(로짓분석)

변수 \ 활동	해수욕	등산/계곡물놀이	수영장에서 보내는 시간
의도(I) ¹⁾	0.8791*	0.4470*	0.4375*
지각된 행동조절 (PBC) ²⁾	0.2724*	0.0581	0.2860*
$-2 \text{Log} L$ ³⁾	122(38.582)	220(11.26)	210(18.09)
ρ^2 ⁴⁾	0.24	0.05	0.22
예측력 ⁵⁾	84.4%	66.7%	83.3%

- 주)1) 의도의 로짓 회귀계수. *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값.
- 2) 지각된 행동조절의 로짓 회귀계수. *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값.
- 3) 검증모형의 대수우도비(log-likelihood ratio)인 Log L에 -2를 곱한 통계치로서 χ^2 분포를 이룬다. 괄호안의 숫자는 χ^2 분포의 임계치이다.
- 4) ρ^2 는 모형이 추정된 후 모형이 관측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0.2~0.4 사이의 값을 가지면 추정된 모형이 아주 좋은 적합도를 가진다고 봄(Fesenmaier, 1988). 일반적으로 대수우도비지수(log-likelihood ratio index)라고 부르기도 하며 회귀분석에서의 R²와 유사하다(허영희, 1992). 산정방정식은 $\rho^2 = 1-L/L_0$ 이다.
- 5) 예측력은 현재 모형으로 관찰치를 정확히 예측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 모형이 각 활동에 참가한 사람을 참가했다고, 참 가지 않은 사람을 참가하지 않았다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등산/계곡물놀이는 0.05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모형의 적합도가 적정하지 못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 모형의 χ^2 분포 측면에서 본 $-2\text{Log} L$ 의 검증통계치는 유의수준 0.05에서 3개 활동 모두 모형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있다.

의도와 지각된 행동조절 변수의 회귀계수값은 해수욕장과 수영장에서 보내는 시간의 경우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alpha=0.05$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활동선택 예측변수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등산/계곡물놀이의 경우 지각된 행동조절의 회귀계수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행동예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두 예측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는 모두 의도가 지각된 행동조절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분석결과는 등산/계곡물놀이 활동선택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계획행동이론의 의도, 지각된 행동조절과 실제 활동선택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증명하고 있다.

V. 結論 및 示唆

국내 여가행동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반 정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여가활동선택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Ajzen 과 Driver(1992)의 여가활동선택에 관한 연구를 배경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들이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여 계획행동이론의 중심 요인들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조절과 의도 및 실제 여름휴가활동도 참가와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해수욕장의 경우 주관적 규범과 등산/계곡물놀이의 수단적 태도만이 의도예측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나머지 여름휴가활동에서는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의도와 지각된 행동조절의 결합은 등산/계곡물놀이의 경우 적합하지 못한 모형으로 판별되었으며, 의도만이 실제 활동 참여 예측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수욕과 수영장에서 보내는 시간에서는 의도와 지각된 행동조절이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변수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행동이론을 발전시킨 계획행동

이론은 국내 여름휴가활동 선택의 영향요인을 도출하는데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본 실증적 연구가 Ajzen과 Driver(1992)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지각된 행동조절의 직접효과가 의도와 행동예측에 크게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속초지역으로 목적지를 선택하여 이곳에 방문한 휴가자들은 여름휴가활동을 어느 정도 자기조절하에서 참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획행동이론에 근거한 여름휴가활동 선택에 관한 연구는 목적지를 떠나기전에 의도와 그 결정변수를 평가한 다음 휴가후 실제 활동참여를 물어봄으로써 자기조절하에서 참여할 수 없는 활동이 존재할 때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다양한 여가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그리고 자기조절이 가능하지 못한 활동이 존재할때 여름 휴가자들은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 고려된 여가활동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하에서 지각된 행동조절의 효과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기여는 조경학 및 관광학에 주로 다루어져 왔던 목적지 선택이 아닌 활동선택과 관련하여 영향요인을 평가 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가활동 선택의 영향요인들의 평가를 통해 리조트 개발계획시 이용자

중심의 여가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도입시설의 결정과 마케팅 전략수립에 기여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1. 최양호(1994), 소비자행동에서의 3개의 태도모델에 대한 고찰, 광고연구, 가을 호, 연구논문4, pp98-117
2. 허명희(1992), SAS 범주형 데이터 분석, 자유아카데미
3. Ajzen, I. (1985), From intention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J.Kuhl & J. Beckmann (Eds.), *Action-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pp. 11-39). Heidelberg: Springer.
4. Ajzen, I and B.L. Driver (1992),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Leisure Choi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3), pp207-224
5. Ajzen, I and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6. Ajzen, I., Madden, T.J. (1986), Prediction of goal-directed behavior: Attitude, Intention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453-474
7. Fesenmaier, Danier R.(1988), "Integrating Activity Patterns Into Destination Choice Model",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0, No.3, pp.175-191.